

WTO 주간 동향(15.3.23~27)

※ (출처 : 통상전문지) Washington Trade Daily, Inside US Trade, Bridges Weekly

1. DDA 협상 동향

□ DDA 협상 현황에 대한 WTO 사무총장의 평가 (3.27 WTD)

- 아제베도 사무총장(3.27 기자브리핑)은, 최근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등 DDA협상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음*을 긍정적으로 평가

* 작년 말까지는 문제점 확인 및 기존 입장·우려 반복 ⇨ 최근 新접근법 모색, 제안서 제출 등 협상 분위기가 명확히 변화, 문제해결 모드로 전환 중

□ 농업 시장접근 부문의 G33* 제안서 논의

("Post-Bali Agriculture Problems", 3.25 WTD / "WTO Negotiations: New Papers Open Old Rifts on Food, Farming", 3.26 Bridges Weekly)

* G33 그룹 : 46개 개도국/최빈개도국으로 구성(의장국-인니, 우리나라·인도·중국 등), 농업 시장접근 부문의 개도국 신축성(특히 개도국 특별품목)에 관심

- G33은 파라과이·아르헨의 제안서에 대응하여, 개도국 특별품목(SP)/특별긴급관세(SSM) 및 개발 측면을 재강조한 수정제안서 회람

* 목표수준 재조정 및 단순화 논의에 대응하여 3.20 농업협상 비공식회의시 회람

□ DDA NAMA협상 진행 경과 및 계획

("Elements' of a Doha Services Agreement", 3.27 WTD)

- NAMA 협상의장*은, 스위스 공식에 대한 찬반이 있지만 회원국들이 대체로 평균관세감축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

* 12개 회원국들과의 협의 경과를 정리한 보고서 발간(3.26)

□ DDA 서비스협상 진행 경과 및 계획

("Elements' of a Doha Services Agreement", 3.27 WTD)

- 서비스 협상의장은 4.20. DDA 서비스 부문 포함요소(elements)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 및 경과 보고서 작성 예정

* 브라질·남아공·우루과이는 농업/NAMA 협상의 합의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비스 협상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

2. 발리패키지 후속조치 동향

- 무역원활화협정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절차 진행상황 점검
("TFA", 3.25 WTD / "Members Slow to Ratify TFA Agreement, Endangering December Goal", 3.27 Inside US Trade)
 - 발효를 위해서는 회원국 2/3(107개국)의 비준서 기탁이 필요하나, △4개국(홍콩·싱가폴·미국·모리셔스)만 기탁 완료, △EU·일본·스위스·노르웨이·중국·멕시코 등은 국내절차 진행 중
 - * 무역원활화협정(TFA) 준비위원회 비공식 회의(3.24)에서, 금년 12월 케냐 각료회의까지 TFA 발효를 위한 각국의 노력 촉구
- 식량안보 공공비축 관련, 미국 vs 인도간 대립
("Bumps in the Road for Food Security", 3.23 WTD / "WTO Negotiations: New Papers Open Old Rifts on Food, Farming", 3.26 Bridges Weekly)
 - 미국은 "각국 공공비축정책의 효율성·무역효과 점검 및 식량안보 정책 평가*, 모범관행 개발 및 권고" 등을 포함한 제안서 제출(3.20)
 - * 특히, 무역을 왜곡하거나 타국의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의도적 결과에 유의
 - 이에 대해 인도(중국·인나·필리핀 지지)는, '14.11월 일반이사회 결정은 현 정책의 검토가 아닌 영구적 해법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

3. 복수국간 협상 동향 : 제5차 EGA(환경상품협정) 협상(3.16~20)

- ("The 600 'Green Goods' List", 3.23 WTD / "EGA's 10 Categories", 3.24 WTD / "EGA Trade Talks on Track for Negotiation Stage", 3.26 Bridges Weekly)
 - 17개 참가국(14개국+이스라엘·터키·아이슬란드)은 5차례 사전협상('14.7~'15.3)을 거쳐 10개 카테고리에서 581개의 환경상품* 리스트 마련
 - * 미·EU·일본·캐나다가 대부분의 품목 제출, 중국은 5차 협상시 70여개 제출
 - '15.12월*까지 성과 도출을 목표로, 환경신뢰성(environmental credibility) 및 회원국 지지도에 근거하여 8월까지 통합된 협상 리스트 작성 추진
 - * 기후변화당사국회의, 제10차 WTO 각료회의